

# 감성공간 '보헤미안' 음반 레이블 탄생



김유일 1집 '자화상'

첫 앨범 김유일 '자화상' 제작  
'탈주' 등 자작곡 10곡 수록  
내일 발매 기념 무료 콘서트  
녹음시설 제대로 갖춰 창작 지원  
정준영·장기하와 얼굴들 콘서트도

지난 2014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 지하에 문을 연 문화감성공간 '보헤미안'(대표 김남국)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만날 수 있는 라이브 공연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또 지역 뮤지션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대중 음악계를 풍성하게 하고 있으며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유명 밴드들의 공연도 유치하고 있다.

최근 보헤미안이 자체 음반 레이블 '보헤미안'을 만들고 앨범 제작 작업을 시작해 눈길을 끈다.

'보헤미안' 레이블의 첫 주인공은 싱어송라이터 김유일(30)씨다. 그의 정규 1집 '자화상'에는 '부유', '날뛰기', '범람원', '탈주', '일몰' 등 모두 10곡이 실렸다. 수록곡들은 몽환적 분위기가 주를 이루며 낮은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가 인상적이다. 또 다양한 이펙터를 활용해 변조한 사운드가 인상적이다. 시와 소설 쓰기를 좋아하는 그가 직접 가사를 썼으며 모든 곡을 직접 작곡했다.

악기 구성은 어쿠스틱 우쿨렐레와 키보드, 일렉트릭 기타, 카논의 조합으로 독특하게 짜여져 있다. 연주자로는 일렉트릭 기타의 김거봉씨와 인디언 수니의 음반 작업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세션 활동을 해온 이정우(카논)씨가 참여했다.

"제 음악이 귀로 듣고 눈으로 그려지기를 바랍니다. 꿈이나 제가 상상했던 모습들이 음악적 사운드로 전해졌으면 마음으로 제작했습니다. 10곡이 한곡처럼 어우러지고, 전곡을 다 듣고 나면 앨범 제목 '자화상'처럼 저의 얼굴, 제 음

악 세계가 조금은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시원 3평 짜리 공간에 머물다 보면 일요일 새벽의 그 고요함 속에서 소리 하나에도 민감해져요. 그 분위기를 표현하려했습니다. 내년에는 '관계 4부작'이라는 타이틀로 분기별로 콘서트도 진행할 생각입니다."

김씨는 오는 23일 오후 8시 보헤미안에서 발매 기념 공연 'ESCAPE'를 무료로 진행한다. 김씨의 앨범은 미디어 신나라, 교보문고 핫트랙스 등 오프라인 매장과 예스 24 등 인터넷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그는 지난 2012년 우연히 광주 클럽에서 인디밴드의 공연을 보고 난 후 음악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다음날 바로 우쿨렐레를 구입하고 음악을 시작, 독학으로 음악을 익혔다.

"처음 공간을 열 때부터 음악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자 싶었어요. 어차피 녹음 시설 등도 갖추고 있으니 음반 작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역에 인디 레이블이 많기는 하지만 제대로 갖춰진 녹음 시설에서 음반을 만들어 내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요. 음반 퀄리티 등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뮤지션들이 좀 더 나은 창작물을 손에 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보헤미안 광우영 음악감독은 앞으로 "정말 자기만의 것들을 표현해 낼 수 있는 친구들과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헤미안은 지난해부터 '프로젝트



자체 음반 레이블 '보헤미안' 제작을 시작한 감성공간 보헤미안 광우영 음악감독(뒤쪽)과 김남국 대표, 첫 앨범을 발매한 김유일(오른쪽)씨.

트 수요일' 기획을 통해 매주 수요일 지역에서 활동하는 뮤지션들에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지금까지 40여 팀이 참여했다. 올해부터는 한 밴드가 매달 공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열었고, 현재 첫 주자로 밴드 '별이삼우물결'이 참여하고 있다. 또 '프라이데이' 프로젝트를 통해 같은 성향의 밴드들의 합동

공연도 진행중이다. 최근에는 여자 밴드 3팀이 함께 공연을 열었다.

보헤미안에서는 오는 24일 뮤지션 정준영이 보컬로 참여하고 있는 '드러 레스토랑'의 공연이 열리며 11월4~5일에는 '장기하와 얼굴들' 콘서트가 진행된다.

문의 062-416-100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개막작 '메리 리틀크리스마스'

## 청소년들의 꿈과 열정

제18회 한국청소년영화제 23~25일 유스퀘어 야외무대

'청소년들의 꿈과 열정을 만나다.'

제18회 한국청소년영화제(KYFF·Korea Youth Film Festival)가 오는 23~25일 광주 유스퀘어 야외무대(개막식)와 세계광엑스포주제관(상영·폐막식)에서 열린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사)매지청소년사회 교육원(이사장 노성대)과 한국청소년영화제 조직위원회(위원장 조배숙·국회의원)가 주관하는 이번 영화제는 '시네키드'들의 특색 있는 감성과 청소년 문제 등을 그들의 시각으로 만날 수 있는 행사다.

'1318의 창, 꿈을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총 28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한국청소년영화제는 청소년영화제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으며 특히 다른 청소년영화제와 달리 만13~18세 청소년을 집중 육성하는 순수 청소년 시네축제라는 데 의미가 남다르다.

23일 오후 7시 유스퀘어 야외무대에서 열린 개막식에서는 청소년영상자료 전시회와 함께 마술공연, '박사이즈 크루' 등이 진행된다.

개막작품은 지난해 대상 수상작인 권자예(한국애니고양)의 '메리리틀크리스마스'로 직접 만든 인형의 움직임을 한껏 한껏의 프레임에 담아낸 애니메이션 작품이다. 이어 24~25일에는 세계광엑스포주제관에서 총 142편의 출품작 중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작품 28편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영화제는 특히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뽑힌 25명의 청소년 심사단이 수상작을 선정하는 게 특징이다. 수상 작품은 전문심사위원 점수 80%와 청소년심사단 점수 20%를 합산해 결정한다. 전문심사는 한국청소년영화제 차주덕 집행위원장 등이 맡는다.

청소년심사단은 광주청소년수련원에서 2박 3일간 머물며 워크숍과 영화감독과의 대화, 해외 우수 청소년영화 상영 등에 참여하며 활동상황은 메이킹 필름으로 제작해 폐막식 때 선보일 예정이다.

25일에는 동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들의 축하공연과 시상식이 열린다. 대상작에는 여성가족부장관상과 상금 150만원이 수여되며 개인상은 감독상, 시나리오상, 연기상, 촬영상, 청소년심사단상을 시상한다. 문의 062-368-804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24일 소쇄원서 '풍류정원, 달빛 춤사위'

광주문화재단(대표 서영진)은 오는 24일 오후 6시 30분 담양 소쇄원에서 '소쇄원 풍류정원, 달빛 춤사위'를 주제로 제2회 풍류정원 달빛공연을 개최한다.

풍류정원 달빛공연은 풍류남도인들이 상설프로그램의 하나로 매달 보름달 가까운 토요일에 소쇄원에서 펼쳐지는 행사.

공연에 앞서 양산보 역을 맡은 배우가 소쇄원 48명 중 일부 재연을 통해 소쇄원의 의미와 주요 공간에 대해 설명하고 관람객들을 위해 춤꾼, 소리꾼을 불러 잔치를 여는 형식으로 시작한다.

첫 번째 무대인 감성무 공연은 국극삼(전 담양예술인협회장) 명인이 황병기 명인의 가야금 연주곡 '소쇄원의 사계'를 춤

으로 승화시키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또 한승철(전통연희예술단 '굴렁쇠' 대표)씨의 한량무가 공연되며 소리꾼 김주희(전남대학교 소리문화연구소)씨가 '사철가'와 '심청가'를 부른다.

이날 행사에서는 선비 풍류 체험도 경험할 수 있다. 소쇄원에 들어서자마자 선비복으로 갈아입고 소쇄원을 누비며 양산보의 시인 문객이 되어 보는 풍류체험과 우리 전통차를 즐길 수 있는 다도체험도 준비되어 있다.

오후 4시부터 소쇄원 입장료가 무료이며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다. 문의 062-670-5744~5.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소리꾼 김주희 '박봉술 춘향가'

오늘 광주 서구 빛고을 국악전수관서 발표회

소리꾼 김주희 '춘향가' 발표회가 22일 오후 7시 광주 서구 빛고을 국악전수관에서 열린다. 광주 서구가 진행하는 목요열린국악한마당 초청 공연이다.

김씨가 부르는 '춘향가'는 동편제 거장 박봉술의 소리로 전승이 끊어져 음원으로만 전해지다 지난 2011년 전남대 전

인상교수가 복원, 5시간에 걸쳐 완성했다. 김씨는 현재 전남대 박사 과정에서 전 교수를 사사하고 있다.

박봉술의 '춘향가'에서 그려지는 춘향의 모습은 기존의 정속함 보다는 적극적인 성격이 도드라진다. 이번 공연에서는 '이도령, 광한루 구경가다', '이도령,

춘향과 만나다', '사랑가' 대목까지를 들려준다.

곡성 출신으로 전남대 예술대학 국악학과를 졸업한 김씨는 국립남도국악원 단원을 역임했으며 전국순창국악대전 일반부 대상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동편제 '수궁가' 완창무대를 가진 바 있으며 현재 전남대소리문화연구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복 장단은 박시양(함평돌머리구판 대표)씨다. 관람료는 무료, 문의 062-350-45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채널A 종합뉴스**

가장 빨리,  
매일 저녁 **7시 20분**에  
뵙겠습니다

박상규 보도본부 부본부장      김설혜 보도본부 기자